

장성군, 행복한 '성장장성' 미래 군민과 함께!

202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공약사업 등 378건 군정계획 논의

장성군이 2026년 군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군은 최근 군정 상황실에서 부서장, 읍면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함께 만드는 성장장성, 함께 여는 행복한 미래'라는 신년 비전 아래 5대 전략인 △미래산업으로 성장동력 강화 △전군민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 실현 △체류형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기후 대응을 통한 미래농업 선도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에 관한 공약사업 28건과 역점사업 41건, 신규사업 53건, 일반사업 256건 총 378건의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군은 먼저 중점 사업인 △청년센터 '아우름' 운영 △황룡전통시장 특색화 사업 △황룡우시장 이전 및 전자경제 현대화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제3출렁다리 조성 △5대 맛거리 조성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읍시가지 일원(영천리 1486-4, 787-9)에 위치한 청년센터 '아우름'은 바닥면적 600㎡ 규모 2층 건물에 일차센터와 창업 공간, 회의실, 상담실, 다목적홀 등을 갖추고 있다. 취·창업 특강, 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1월 중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

황룡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2월부터 수선 공사(리모델링)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착공 시기는 9월 경으로 예상된다.

황룡우시장은 황룡면 신화로로 이전하고, 전자 경제 현대화 시설을 구축한다. 6월 무렵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하면 신성리 일원에 조성 중인 신규 파크골프장은 빠르면 6월부터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6홀 규모 파크골프장과 클럽 하우스, 주차장 등을 갖춘다.

장성호 주변 데크길인 '출렁길'과 '숲속길'을 연결하는 '제3출렁다리'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3월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5대 맛거리 조성사업은 기존 마라탕 외에 추가로 4곳의 신규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지역 축제와 연계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국·도·군비 등 2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8년까지 장성읍 대창지구 일원에 편백나무센터, 창의목공예센터, 판매 특화거리 등

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초부터 실시설계 공모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택시 바우처 대상자 연령 확대 △장성 원더랜드 조성 △죽령산 자연휴양림 조성 △광주주요콜푸드 직매장 2호점 설치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전남 생활체육대회 개최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완도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 할인과 구매 금액을 확대한다.

군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군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9년부터 완도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오고 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지류(신 할인), 모바일(캐시백 적립)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

완도사랑상품권 1월부터 할인·구매 금액 확대

모바일 상품권 15% 캐시백 적립, 월 70만 원-연간 700만 원 구매

중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지류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모바일 상품권은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 금액은 사용 후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아울러 개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늘렸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불편을 고려하여 지류 상품권은 기존과 같

이 농협, 수협, 신한 등 판매 대행점을 통해 대면으로 구매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이 매출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꼼꼼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지역 축제와 연계한 적립 이벤트 등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성우 기자

곡성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옥곡면 죽림리 일원에 지역제한형 특화주택을 조성하게 됐다.

지역제한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제안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곡성군 지역제한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4월 선정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한 모델로, 청년과 신혼

곡성군, 2025년 하반기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공모 선정

청년·신혼부부 안정적 정착·지역사회활성화 공공주택 건립

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포함해 총 7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입주자는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최장 16년까지 거주할 수 있

어, 실질적인 주거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대상지인 옥곡면 죽림리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속적인 일자리 기반이 형성돼 있다. 또한 병설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의료시설 등 주요 교육·생활 시설이 주변에 고

르게 분포해 있어, 육아와 교육, 의료 이용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곡성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다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주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강진군은 제54회 강진청자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색을 담은 먹거리로 축제의 맛을 더할 솜씨 좋은 운영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강진청자축제는 청자의 고향, 강진의 대표 축제인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개최되며, 청자문화를 꽃피운 문화

제54회 강진청자축제 음식부스 운영자 모집

군민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화목가마 불지피기, 청자 판매전, 청자빚기 체험 등 다양한 청자 체험과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음식관 내 공개 모집 부스는 4개소이

며, 참여 자격은 만 19세 이상자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필한 업소와 축제 20일 전까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가능한 자로 가성비 주메뉴 8,000원 이하 메뉴 1종 이상을 취급해야 하며, 단가는 최고 3

만 원 미만으로 책정해야 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음식을 선보일 예정으로 메뉴의 차별성과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메뉴 구성, 가격의 적정성, 축제 컨셉 기여도, 축제 및 행사 참여 경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담양군, 자매교류 도시 순창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서로의 지역 발전 응원하며 돈독한 협력 다짐

담양군은 지난 12월 31일 자매결연 지자체인 순창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양 지자체의 민간단체 대표자들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각 500만 원씩 상호 기부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상호 기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체결한 담양-순창 민간분야 교류협약을 계기로 양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담양군 5개 단계와 순창군 7개 단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순창군에서는 이장협의회(회장 김영), 주민자치협의회(부회장 윤병호), 체육회(회장 손충호),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명자), 새마을운동 순창군

지회(회장 권오준), 자율방범연합대(대장 최순봉), 대한적십자사 순창지구협의회(협의회장 소명자) 등 7개 단체 대표 8명이 담양군을 방문했다.

담양군에서는 주민자치연합회(회장 조희범), 체육회(회장 정영장), 새마을회(회장 김중수), 자율방범연합회(회장 장윤숙),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윤종진) 등 5개 단체 대표 8명이 순창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서로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고 마음을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고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35억 9천만 원 기록... 전남 1위

담례품 발굴과 현장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총 35억 9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2024년 모금액 9억 3천만 원 대비 약 286% 증가한 수치로, 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가 단기간의 일회성 성과를 넘어 안정적인 모금 기반을 구축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고흥군은 현장 중심의 홍보 강화와 민간 플랫폼 연계 통한 기부 접근성 확대,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담례품 경쟁력 제고 등 기부자 중심의 운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전국 각지의 참여로 이어지며 모금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아울러 2025년 지정기부금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지원 분야에 집중돼 전체 지

정기부의 약 77.5%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라는 명확한 목적 제시를 통해 기부자의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 낸 결과다.

기부자 구성 측면에서도 전국 각지의 향우회원과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참여가 모금 확대를 견인했으며, 10만 원 단위의 소액 기부자 또한 주를 이루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폭넓은 참여 기반을 형성했다.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260명이 총 6억 8,653만 원을 기부하며, 2025년에는 최고 기부 한도인 2천만 원을 기부한 최고액 기부자가 8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매월 꾸준한 기부에 참여한 기부자가 12개월 동안 총 760여만 원을 기부하는 사례도 확인돼, 일회성 참여를 넘어 지속적인 나눔 문화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고흥/박도일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지금 읽고 있는 것보다 더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간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갈릴 것 같고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원더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해
 평범함의
 정말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풍만한 것
 고흥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언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치

책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나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에서
 있는 건데 말이다.
 포근한 이불
 우어도 보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
 잠시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